

석사학위논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오민숙


2004년 8월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4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오 민 숙

오민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 초록>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오 민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밝혀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변인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1, 2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사회적 지지 검사지와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그리고 개인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김승미(1998)가 초·중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부모,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교사, 친구를 사회적 지지원으로 한정하여,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 검사는 유윤희(1994)가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중·고등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하여 부모, 교사가 제공하는 관심, 정보 등의 사회적 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

둘째,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하여 부모, 친구가 제공하는 관심, 물질적 원조 등의 사회적 지지는 모자가정 자녀가 부자가정 자녀에 비해 높다.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교사관계, 수업태도 등의 학교생활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잘 적응한다.

넷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교사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의 제공이 중요하며,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지지가 요구되고,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지지가 요구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부모가정 자녀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므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부모, 교사,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필

요하며, 특히 지지원으로서 교사의 지지와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의 제
공이 중요하고,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지지가,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지
지가 중요하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한부모가정의 개념과 특징	6
2. 사회적 지지의 개념, 지지원 및 지지유형	9
3.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응	13
4.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17
III. 연구 방법	21
1. 연구 대상	21
2. 측정 도구	21
3. 자료의 분석	23
IV. 결과 및 해석	24
1.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24
2.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28
3.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30
V. 요약, 결론 및 제언	42
1. 요약	42
2. 결론	45
3. 제언	46
참고문헌	48
Abstract	54
부록	56

표 목 차

<표 III- 1> 연구 대상자	21
<표 III- 2>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22
<표 III- 3>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23
<표 IV- 1> 성별에 따른 지지원별 사회적 지지	24
<표 IV- 2> 성별에 따른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	25
<표 IV- 3>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원별 사회적 지지	26
<표 IV- 4>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	27
<표 IV- 5>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28
<표 IV- 6>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29
<표 IV- 7>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30
<표 IV- 8>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32
<표 IV- 9> 남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33
<표 IV-10> 여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35
<표 IV-11> 부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37
<표 IV-12> 모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39

부 록 목 차

<부록 1> 사회적 지지 검사지	58
<부록 2>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63
<부록 3> 개인별 특성에 대한 질문지	6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 상태로서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발달은 청소년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며, 인지의 발달은 아동기 때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자아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을 성취하려는 심리적 이유가 일어나며, 친구 관계를 확대시켜 나간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성취하여야 할 발달과제가 많아 적응의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한상철 외, 1998).

이런 다양한 변화와 발달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기제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를 겪게되며 나아가 바람직한 성인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획일화되고 경쟁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입시와 취업을 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윤채봉, 2000).

한편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바뀌었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가족의 분화와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1). 다양한 형태의 가정은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청소년기의 정서적 긴장과 심리적 불안에 대해 적절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가족 해체 등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그밖의 행동상

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임된 상태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으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로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결석이 증가하며 가출이나 비행할 가능성이 증가한다(최경석 외, 2003).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가족의 구조적·기능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부적응적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정서적 문제, 친구 및 대인 관계, 학교생활 적응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가정 이외의 주요 생활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가치관, 태도 등 나름의 문화를 내면화시켜 나간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는 개인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 요인이다. 청소년들은 교사를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인격적 감화를 받게되며 또한 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이상섭 외, 1994).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부모, 친구,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

부모, 친구, 교사 등의 의미 있는 타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Kaplan, 1983).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으며, 학교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또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높은 반면, 또래 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은 또래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보다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결석이 잦다(Felnre, Ginter & Primavera, 1982).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강할수록 교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며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김혜경, 1999).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에서 부모, 교사, 친구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

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부 또는 모와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인 혼란과 소득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한부모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부모,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문제가정의 자녀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부적응적 행동들을 대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많으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지원별(부모, 교사, 친구)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2.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지유형별(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3. 한부모가정의 가족형태(부자가정, 모자가정)에 따라 지지원별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4. 한부모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라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은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1.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2.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III-1.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III-2.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III-3.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Ⅲ-4.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제주도 내 중학교 1, 2학년 학생 중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관찰법, 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조사에 국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정의 개념과 특징,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지지원 및 지지유형,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응,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부모가정의 개념과 특징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사회적 태도와 의식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독립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주로 하는 가족주의에서 개인의 삶과 인격이 우선시 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가족의 분화와 해체를 가속화시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이외에 한부모가정, 노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무자녀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1).

한부모가정은 편부모가족, 편부모가정, 편부모가구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들은 문제가정이라는 부정적이고 결혼의 의미가 강하여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기 위해 바뀌어진 개념이다(이소희 외, 2003). 변화순 등(2001)은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이혼, 사별, 별거, 유기 등에 의하여 양친 중의 한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한부모가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을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영숙과 황은숙(2003)은 한부모가정을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로 인하여 발생한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을 '모가 세대주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으로, 부자가정을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하여 모자복지법상에 규정된 한부모가정은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혼, 사별,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정의하고, 한부모가정을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부모가정은 별거, 유기, 가출 등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과 부부간의 이혼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통사회에서 한부모가정의 발생은 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원인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고사, 이혼의 증가가 한부모가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이소희 외, 2003).

이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 9.7%에서 1990년 8.7%, 1995년 8.6%로 감소하다가 2000년 9.4%(통계청, 2001)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구성비를 보면 사별이 가장 많아 44.7%이고 다음이 가출, 유기 등으로 인한 유배우 상태로 22.5%였다. 그리고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은 21.9%로 1995년의 9.8%에 비해 12.1%나 증가하여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에서 중요한 변화는 사별 이외에 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변화순 외, 2001). 이혼은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한부모가정이 발생하여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 가족생활의 문제, 특히 자녀에게는 사회·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그 양상이 다양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빈곤, 자녀의 양육문제, 심리·정서적 적응의 문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한부모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로서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비해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자녀 양육비나 탁아비용의 증가, 미숙한 가계관리로 인한 가계 생활비 증가 등 간접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미숙 외, 2000).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 부의 부재로 인한 소득원의 상실은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는 생계를 위하여 취업을 하지만 단순 노동, 하위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변화순 외, 2001).

둘째, 한부모가정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임된 상태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주(1999)는 부자가정의 부는 자녀들의 감정적인 욕구를 잘 다루지 못하여 자녀들과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딸이 성장할수록 성교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며, 부자가정의 자녀는 모의 부재로 인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관심 및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약해지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로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결석이 증가하며 가출이나 비행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최경석 외, 2003).

셋째, 한부모가정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배우자의 상실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부모, 형제,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심리적 불안상태를 경험하는데,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실제 한부모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일반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비해 낮으며, 특히 부자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모자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 보다 더욱 낮다(변화순 외, 2001). 또한 부자가정의 자녀는 모의 부재로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표현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을 비롯한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이소희 외, 2003).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정은 가족의 구조적·기능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감정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부모, 형제, 이웃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 적응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개념, 지지원 및 지지유형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고 정신적 증상을 예측하게 해주며 정신질환에 대한 노출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ohen & Hoberman, 1983).

Maslow(1971)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열거하고 욕구의 계층별 조직과 충족의 진행 순서를 설명하면서 욕구 계층의 셋째 단계에 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고 하였다(윤채봉, 2000. 재인용).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Cobb(1979)는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펴지고 사랑 받고 있다는 것, 가치를 부여받고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기능으로 사회적 욕구의 충족, 그리고 위기와 스트레스 요인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시하였다. Kahn(1980)은 사회적 지지단을 사회적 지지를 주거나 받는데 관련된 의미 있는 타자의 집합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지지를 정서, 재확신, 보조 등을 교환하는 대인간 교류라고 정의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했으며, Weiss(1986)는 사회적 관계가 생활주기에 걸쳐 개인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6가지 사회적 기능으로 애착, 사회적 통합, 가치의 확신,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지도 및 지침의 획득을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의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자존감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와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를 말

한다고 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정보, 인정,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발달과정과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인과모델은 주로 완충모델과 주효과모델로 대표되는데 완충 모델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고 가정하며, 주효과 모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안녕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완충모델에서는 스트레스적 생애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회적 지지가 제공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주효과모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지지의 연구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충효과와 주효과와의 이분법적 모델이 사회적 지지-스트레스-개인의 안녕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Wheaton(1985), Lin(1986) 등의 학자에 의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이원숙, 1995).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되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받은 지지가 아닌 지각된 지지가 대처의 효율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하며(Cohen & Syme, 1985), 적응을 예언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Sarason & Pierce, 1991)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과 제공되는 지지유형에 관한 것, 지지원과 지지유형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Thoit(1986)는 사회적 지지원과 사회적으로 제공받은 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지지유형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원과 지지유형이 지지의 절대적인 양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누가(지지원), 무엇(지지유형)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오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는 달리 사회망이 확대되는 동시에 구성면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를 보이며 성인의 사회망의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망은 아동과 성인의 사회망의 중간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박아청, 2000), 이는 청소년기의 지지적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은 많은 또래와 접촉의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의 정체감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지지해 주는 타자를 선택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의 여러 연구에서 부모, 형제, 친구, 교사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으로 사회적 지지원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Harter, 1985), 김명숙(1995) 등도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개인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는 부모 및 이들을 포함하는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인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원을 다음과 같이 부모, 교사, 친구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 중에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성격, 가치관, 태도와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사회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지지는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지지 관계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지적 발달, 만족스러운 또래 관계와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Parke, 1981), 어머니와 긍정적인 지지 관계에서 높은 신뢰감을 형성한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윤미경, 1998).

둘째, 청소년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친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망을 넓혀 가는데 친구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 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나름의 문화를 내면화시켜 나간다.

Piaget(1965)는 아동기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친구 관계는 도덕성, 사회적 기술과 유능감, 나아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Sullivan(1953)은 친구 관계는 청소년기 발달에서 필수적이며, 친구 관계의 속성을 친구에 대한 친밀감과 친구의 욕구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협응이라고 하였다(한상철 외, 1998. 재인용). 황윤경(1996)은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이유로 인한 정서적 의존의 욕구를 친한 친구 집단에서 충족 받고 싶어하며 맞벌이 가정이 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친한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가족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교사는 개인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으로서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이외의 최초의 성인이다. 청소년은 교사를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이론 및 기능을 습득하고, 그와의 비형식적인 관계를 통하여 인격적 감화를 받게되며 또한 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교사의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윤미경(1998)은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만족감은 교사의 지지와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김혜경(1999) 등도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성격 형성,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에게 부모, 교사, 친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유형과 관련하여 유연옥(1999)은 사회 구성원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상황에 따라 지지 형태, 내용, 의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Cobb(1979)는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유형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존중적 지지, 관계망 지지로 구분하였고, House(1981)는 정서적 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지지(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평가 등), 정보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등), 도구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로, Cohen과 Will(1985)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동반적 지지로 나누었다.

보다 최근 MOS(Medical Outcomes Study)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긍정적 정서의 표현, 감정 이입적 이해, 감정 표출의 격려), 정보적 지지(조언, 정보, 지침 또는 환류의 제공), 구체적 지지(물질적 보조 혹은 행동적 보조 제공),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이용 가능성), 애정적 지지(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포함)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원숙, 199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김명숙(1995)이 사회적 지지유형으로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를 제시하였고, 박지원(1985)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존경, 애정, 신뢰, 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 둘째는 개인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셋째는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물질적 지지, 넷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으로 지지의 내용에 따라 사회적 지지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지유형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응

적응(adjustment)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개인의 요구를 환경의 요구에 대해 균형을 맞추며, 현실적인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히 고려하고 또한 상황의 한계 내에서 개인이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처하려는 성공적인 또는 비성공적인 시도를 말한다(한성희, 2002). 김연주(1997)는 적응을 사회의 요구, 질서 등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해 가는 행동과정이라고 하였고, 노숙영(1998)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욕구좌절 또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

결하는 행동과정이라고 하였다.

Glaser(1965)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가치로운 존재로 살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적응과 부적응이 가려진다고 설명한다. 즉, 적응이란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 관련된 욕구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유기섭 외, 2003. 재인용).

반면에 부적응(maladjustment)이란 욕구불만이나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욕구불만이란 어떤 장애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데서 생기는 정서적 긴장 상태를 말하며, 갈등이란 대립되는 2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이상섭 외, 1994). 교육학대사전(1992)에서는 부적응을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회의 질서·규범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사회에 대하여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즉 부적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고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서 개인의 욕구, 감정, 사상 등이 사회의 규범에 용납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한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비교육적인 영향도 학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 교사와의 대화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규칙준수 등의 생활을 하게 되며, 학교생활의 구성요소로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 학급생활 등이 있다(교육학대사전, 1992).

위에서 살펴본 적응과 학교생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정의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한 학교생활적응의 정의를 살펴보면, 민영순(1979)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였고, 안영복(1985)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

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장연집(1997)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생들이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현정(1998)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의 질서·규범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학교생활부적응이란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특성이 학교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범재(1991)는 학교생활부적응을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욕구불만이나 갈등이 심하여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이탈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교생활부적응이란 개인의 욕구가 학교내 환경과의 관계, 또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서 수용 또는 만족되지 못함으로써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교생활부적응의 유형으로는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공격적인 행동, 학력부진, 가족 구성원의 상실로 인한 슬픔, 우울증과 자살충동, 약물남용,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한 장래목표 설정의 어려움 등 크게 학습 능력의 측면과 사회화 능력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용호, 2000).

학교생활부적응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적 요인으로서 지적 능력의 결핍, 심리·정서적인 문제, 가정적 요인으로서 결손가정의 문제, 경제적 빈곤, 부적절한 양육태도, 학교요인으로서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제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과과정,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배의숙, 2002).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성별, 연령, 학업 성적, 자아존중감,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 등의 여러 가지 학교생활적응 요인이 보고되었다.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안영복(1985)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학교생활적응 과정에 문제가 있고, 중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부적응 학생보다 지적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관심을 갖는 반면, 부적응 학생은 학습활동에서 흥미를 잃고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는데,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성이 발달되고 신체적으로 일찍 조숙해지지 때문이라고 하였다(유윤희, 1994; 김경숙, 1999).

최장숙(1993)은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 등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성적이 향상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장경숙(1996)과 김혜경(1999)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하는 반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낮아지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이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도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경숙(1999)은 부모의 사별, 이혼, 별거 및 기타의 이유로 해서 발생한 정상적 생활의 파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정상적 갈등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의 질서·규범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영역으로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을 사용하고자 한다.

4.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연관성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Kaplan 등(1983)은 자기거부와 사회적 지지의 결핍이 청소년기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Cohen과 Wills(1985)는 그들의 모델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며(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체계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집단 내에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된다(한성희, 2002).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는데 주효과모델과 완충모델이 있다. 주효과모델은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이며, 완충모델은 개인이 대인 관계를 통해 얻은 자원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이원숙, 1995).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미현(1996)은 사회적 지지 지각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적 관계가 있어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는 적게 나타나며, 사회적 지지 지각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주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어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에 유용한 중재변수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김승미(1998)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혜경(1999)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하는 반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낮다고 하였다. 중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김관희, 1997; 임유진, 2001)에서도 청소년이 주위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면에서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연관성에 관한 여러 연구(Harter, 1985; 김명숙, 1995; 윤미경, 1998)에서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 지지원으로서 부모, 교사, 급우, 친구 등이 제시되었고,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 친구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원과 관련된 연구에는 첫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Wood(1972)는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했으며, Parke(1981)는 아버지와의 지지적 관계는 높은 수준의 지적 발달, 만족스러운 또래 관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Dubois 등(1994)은 부모-자녀의 관계와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강하고 지지적인 부모-자녀의 관계는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촉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고, 부모와의 강한 관계는 문제 행동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또한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김명숙(1995)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중에서 또래 지지가 아동의 부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한미현(1996)도 친구 지지는 김명숙(199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언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변수라고 하면서 적응을 돕고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Felner 등(1982)은 학교 친구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또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높은 반면, 또래 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은 또래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보다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결석이 잦다

고 하였고, Hartup(1983)은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친구 관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행동문제 등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Ladd 등(1996)도 급우들의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교 친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경우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전감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김승미(1998)의 연구에서는 지지원 중 교사의 지지는 전체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김혜경(1999)도 교사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체계이며 일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강할수록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며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지원은 교사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을 잘 하며, 특히 교사로부터의 인정과 지지는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인 요인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게는 부모, 친구는 물론 교사가 인정과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Bryant(1985)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기능의 여러 측면간에는 가족의 크기, 성별이 함께 작용한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국내 여러 연구에서 친구 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등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이경주, 1997; 임유진, 200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채봉(2000)의 징계처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고 학교생활적응도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연순(2000)의 부자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높았다. 특히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남학생은 사회적 지지유형이, 여학생은 사회적 지지원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이경주, 1997).

이외에도 청소년의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

구에서 부모나 친구의 지지에 비해 교사의 지지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학교 생활적응에서도 하위영역인 교사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의 많은 지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이경주, 1997; 임유진, 2001).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정보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윤채봉(2000)의 징계처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유형별로는 물질적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정보적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며 특히, 부모로부터는 물질적 지지를 우선 지각하고 있었다.

김연순(2000)의 부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높게(평균 3.47) 지각하고 있으나, 일반가정 아동(평균 3.61)과 비교해보면 지지도가 낮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원 중에서는 부모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환경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의 부재로 인하여 가사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화정(2002)은 한부모가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므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연관성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부모, 교사, 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 중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하리라 예상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 측정 도구, 자료의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1, 2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 1> 연구 대상자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7	52.8
	여	51	47.2
가족형태	부자가정	50	46.3
	모자가정	58	53.7
계		108	100.0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사회적 지지 검사지와 학교생활적응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1) 사회적 지지 검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김승미(1998)가 초·중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 교사,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방식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대하여 ‘항상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서적 지지 :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지지
- ② 평가적 지지 :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 ③ 정보적 지지 :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④ 물질적 지지 :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 III-2>와 같이 Cronbach α 가 사회적 지지 .92로 나타나 만족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표 III- 2>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구	분	문항수	문항번호	Alpha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7	1, 2, 3, 4, 5, 6, 7	.86
	평가적 지지	6	8, 9, 10, 11, 12, 13	.53
	정보적 지지	6	14, 15, 16, 17, 18, 19	.90
	물질적 지지	5	20, 21, 22, 23, 24	.90
사회적 지지 전체		24		.92

2) 학교생활적응 검사

학교생활적응 검사는 유윤희(1994)가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중·고등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32개 문항(15, 21, 25, 26, 27, 28, 30, 31은 역산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방식은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대하여 ‘항상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사관계 : 학생과 교사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 표현의 적절성 여부
- ② 교우관계 :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학급생활의 적극성 여부,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
- ③ 수업태도 :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
- ④ 학교규칙 :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III-3>과 같이 Cronbach α 가 .78로 나타났다.

<표 III- 3>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구	분	문항수	문항번호	Alpha
학교생활 적응	교사관계	8	1, 5, 9, 13, 17, 21, 25, 29	.58
	교우관계	8	2, 6, 10, 14, 18, 22, 26, 30	.57
	수업태도	8	3, 7, 11, 15, 19, 23, 27, 31	.58
	학교규칙	8	4, 8, 12, 16, 20, 24, 28, 32	.56
학교생활적응 전체		32		.78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가설 I :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1) 성별에 따른 지원별 사회적 지지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원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 1> 성별에 따른 지원별 사회적 지지

구 분	남 (n=57)		여 (n=51)		전 체 (n=108)		t
	M	SD	M	SD	M	SD	
부 모	3.63	0.59	3.41	0.56	3.52	0.58	1.99*
교 사	3.18	0.75	2.68	0.66	2.94	0.75	3.65**
친 구	3.19	0.53	3.38	0.44	3.28	0.49	-2.04*
전 체	3.33	0.49	3.16	0.35	3.25	0.44	2.13*

* p<.05, ** p<.01

<표 IV-1>에서 부모의 지지는 남학생(M=3.63)이 여학생(M=3.41)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1.99, p<.05).

교사의 지지는 남학생(M=3.18)이 여학생(M=2.68)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3.65, p<.01$).

친구의 지지는 여학생($M=3.38$)이 남학생($M=3.19$)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04, p<.05$).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남학생($M=3.33$)이 여학생($M=3.16$)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13, p<.05$). 이는 임유진(2001)이 일반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결과와는 다르나, 김연순(2000)의 부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윤채봉(2000)의 징계처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여학생의 사회적 지지 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즉,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는 일반 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는 그 양상이 다르며, 구체적으로 부모, 교사로부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 2> 성별에 따른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

구 분	남 (n=57)		여 (n=51)		전 체 (n=108)		t
	M	SD	M	SD	M	SD	
정서적 지지	3.33	0.56	2.97	0.44	3.16	0.53	3.69**
평가적 지지	3.12	0.25	3.07	0.26	3.10	0.26	1.16
정보적 지지	3.58	0.69	3.34	0.50	3.47	0.62	2.06*
물질적 지지	3.28	0.74	3.30	0.50	3.29	0.63	-0.13
전 체	3.33	0.49	3.16	0.35	3.25	0.44	2.13*

* $p<.05$, ** $p<.01$

<표 IV-2>에서 정서적 지지는 남학생($M=3.33$)이 여학생($M=2.97$)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3.69, p<.01$).

평가적 지지는 남학생($M=3.12$)이 여학생($M=3.07$)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보적 지지는 남학생(M=3.58)이 여학생(M=3.34)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06, p<.05$).

물질적 지지는 남학생(M=3.28)과 여학생(M=3.30)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1)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원별 사회적 지지

한부모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라 지지원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 3>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원별 사회적 지지

구 분	부자가정 (n=50)		모자가정 (n=58)		전 체 (n=108)		t
	M	SD	M	SD	M	SD	
부 모	3.36	0.63	3.66	0.50	3.52	0.58	-2.77**
교 사	2.89	0.67	2.99	0.81	2.94	0.75	-0.74
친 구	3.17	0.52	3.37	0.45	3.28	0.49	-2.16*
전 체	3.14	0.47	3.34	0.39	3.25	0.44	-2.48*

* $p<.05$, ** $p<.01$

<표 IV-3>에서 부모의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3.66)가 부자가정의 자녀(M=3.36)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77, p<.01$).

교사의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2.99)가 부자가정의 자녀(M=2.89)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친구의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3.37)가 부자가정의 자녀(M=3.17)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16, p<.05$).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3.34)가 부자가정의 자녀(M=3.14)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48, p<.05$).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자녀가 부자가정의 자녀보다 부모, 친구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부자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모자가정의 가정생활만족도보다 낮으며(변화순 외, 2001), 부자가정의 자녀가 모의 부재로 가사부담 등을 떠안는 등 가정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연순, 2000)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

한부모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라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 4>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유형별 사회적 지지

구 분	부자가정 (n=50)		모자가정 (n=58)		전 체 (n=108)		t
	M	SD	M	SD	M	SD	
정서적 지지	3.04	0.56	3.28	0.49	3.16	0.53	-2.39*
평가적 지지	3.06	0.25	3.13	0.26	3.10	0.26	-1.51
정보적 지지	3.35	0.69	3.57	0.53	3.47	0.62	-1.90
물질적 지지	3.13	0.63	3.42	0.62	3.29	0.63	-2.37*
전 체	3.14	0.47	3.34	0.39	3.25	0.44	-2.48*

* $p<.05$

<표 IV-4>에서 정서적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3.28)가 부자가정의 자녀(M=3.04)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39, p<.05$). 이는 부자가정의 자녀가 모의 부재로 정서적인 문제에서 부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자가정 자녀의 모성 결핍은 타인과의 원만한 정서적 교류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적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3.13)가 부자가정의 자녀(M=3.06)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보적 지지 또한 모자가정의 자녀(M=3.57)가 부자가정의 자녀(M=3.35)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물질적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3.42)가 부자가정의 자녀(M=3.13)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37, p<.05$). 이는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 변화순(2001) 등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며, 최근 들어 활발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모자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가설Ⅱ :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성별·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 5>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구 분	남 (n=57)		여 (n=51)		전 체 (n=108)		t
	M	SD	M	SD	M	SD	
교사관계	2.69	0.55	2.39	0.51	2.55	0.55	2.87**
교우관계	3.05	0.55	2.99	0.56	3.02	0.56	0.63
수업태도	2.96	0.54	2.76	0.35	2.87	0.47	2.20*
학교규칙	2.75	0.54	2.68	0.49	2.72	0.52	0.69
전 체	2.86	0.44	2.71	0.30	2.79	0.38	2.18*

* $p<.05$, ** $p<.01$

<표 IV-5>에서 교사관계는 남학생(M=2.69)이 여학생(M=2.39)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87, p<.01$).

교우관계는 남학생(M=3.05)이 여학생(M=2.99)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업태도는 남학생(M=2.96)이 여학생(M=2.76)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20, p<.05$).

학교규칙은 남학생($M=2.75$)이 여학생($M=2.68$)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은 남학생($M=2.86$)이 여학생($M=2.71$)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2.18, p<.05$).

한편, 성별과 관련하여 김경숙(1999) 등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부자가정의 여학생의 경우 모를 대신한 가사일 등의 부담과 사춘기를 거치면서 신체적·정서적 변화 등의 문제를 부와 적절히 나누지 못함으로써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한부모가정 자녀의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 6>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구 분	부자가정 (n=50)		모자가정 (n=58)		전 체 (n=108)		t
	M	SD	M	SD	M	SD	
교사관계	2.53	0.52	2.57	0.58	2.55	0.55	-0.43
교우관계	2.94	0.60	3.09	0.52	3.02	0.56	-1.50
수업태도	2.78	0.46	2.94	0.47	2.87	0.47	-1.72
학교규칙	2.70	0.44	2.73	0.58	2.72	0.52	-0.28
전 체	2.74	0.37	2.83	0.39	2.79	0.38	-1.32

* $p<.05$

<표 IV-6>에 따르면 교사관계에서 모자가정의 자녀가 $M=2.57$, 부자가정의 자녀가 $M=2.53$, 교우관계에서 모자가정의 자녀가 $M=3.09$, 부자가정의 자녀가 $M=2.94$, 수업태도에서 모자가정의 자녀가 $M=2.94$, 부자가정의 자녀가 $M=2.78$, 그리고 학교규칙에서 모자가정의 자녀가 $M=2.73$, 부자가정의 자녀 $M=2.70$ 로 나타나 전 영역에서 모자가정의 자녀가 부자가정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도 모자가정 자녀(M=2.83)가 부자가정 자녀(M=2.7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부모 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가설Ⅲ :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1)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부모가정 자녀의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 7>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구 분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전 체	
지지원 별	부 모	0.300** (0.002)	0.320** (0.001)	0.388** (0.000)	0.229* (0.017)	0.419** (0.000)
	교 사	0.598** (0.000)	0.134 (0.168)	0.349** (0.000)	0.292** (0.002)	0.468** (0.000)
	친 구	0.238* (0.013)	0.603** (0.000)	0.263** (0.006)	0.184 (0.056)	0.447** (0.000)
전 체	0.567** (0.000)	0.448** (0.000)	0.473** (0.000)	0.339** (0.000)	0.624** (0.000)	

* p<.05, ** p<.01

<표 IV-7>를 살펴보면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전체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r=.624, p<.01), 구체적으로 교사 지지(r=.468), 친구 지지(r=.447), 부모 지지(r=.419)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구체적으로 부모의 지지는 수업태도($r=.388$), 교우관계($r=.320$), 교사관계($r=.300$)와 $p<.01$ 수준에서, 학교규칙($r=.229$)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지는 교사관계($r=.598$), 수업태도($r=.349$), 학교규칙($r=.292$)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교우관계($r=.134$)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의 지지는 교우관계($r=.603$), 수업태도($r=.263$)와 $p<.01$ 수준에서, 교사관계($r=.238$)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규칙($r=.184$)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교사관계($r=.567$), 수업태도($r=.473$), 교우관계($r=.448$), 학교규칙($r=.339$)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선행 연구들(임유진, 2001; 이경주, 1997)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지지($r=.468$, $p<.01$)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지지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 8>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구 분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전 체	
지지 유형별	정서적	0.518**	0.329**	0.455**	0.315**	0.549**
	지지	(0.000)	(0.001)	(0.000)	(0.001)	(0.000)
	평가적	0.456**	0.338**	0.260**	0.199*	0.432**
	지지	(0.000)	(0.000)	(0.007)	(0.039)	(0.000)
	정보적	0.505**	0.412**	0.483**	0.333**	0.590**
	지지	(0.000)	(0.000)	(0.000)	(0.000)	(0.000)
전 체	물질적	0.448**	0.444**	0.333**	0.262**	0.511**
	지지	(0.000)	(0.000)	(0.000)	(0.000)	(0.000)
전 체	0.567**	0.448**	0.473**	0.339**	0.624**	
	(0.000)	(0.000)	(0.000)	(0.000)	(0.000)	

* p<.05, ** p<.01

<표 IV-8>에서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정보적 지지($r=.590$), 정서적 지지($r=.549$), 물질적 지지($r=.511$), 평가적 지지($r=.432$)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교사관계($r=.518$), 수업태도($r=.455$), 교우관계($r=.329$), 학교규칙($r=.31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수업태도, 교우관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적 지지는 교사관계($r=.456$), 교우관계($r=.338$), 수업태도($r=.260$)와 $p<.01$ 수준에서, 학교규칙($r=.199$)과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적 지지는 교사관계($r=.505$), 수업태도($r=.483$), 교우관계($r=.412$), 학교규칙($r=.33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적 지지는 교사관계($r=.448$), 교우관계($r=.444$), 수업태도($r=.333$), 학교규칙($r=.262$)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정보적 지지($r=.590, p<.01$)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문제의 대처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의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1) 남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부모가정 남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 9> 남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구 분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전 체	
지지원 별	부 모	0.268* (0.044)	0.491** (0.000)	0.385** (0.003)	0.293* (0.027)	0.450** (0.000)
	교 사	0.657** (0.000)	0.360** (0.006)	0.340* (0.010)	0.360** (0.006)	0.537** (0.000)
	친 구	0.515** (0.000)	0.665** (0.000)	0.496** (0.000)	0.521** (0.000)	0.687** (0.000)
지지 유형별	정서적 지지	0.545** (0.000)	0.544** (0.000)	0.436** (0.001)	0.448** (0.000)	0.617** (0.000)
	평가적 지지	0.477** (0.000)	0.523** (0.000)	0.383** (0.003)	0.297* (0.025)	0.526** (0.000)
	정보적 지지	0.558** (0.000)	0.548** (0.000)	0.515** (0.000)	0.455** (0.000)	0.649** (0.000)
	물질적 지지	0.602** (0.000)	0.571** (0.000)	0.417** (0.001)	0.450** (0.000)	0.638** (0.000)
전 체	0.628** (0.000)	0.621** (0.000)	0.507** (0.000)	0.489** (0.000)	0.702** (0.000)	

* $p<.05$, ** $p<.01$

<표 IV-9>에서 한부모가정 남학생의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친구 지지($r=.687$), 교사 지지($r=.537$), 부모 지지($r=.450$)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는 교우관계($r=.491$), 수업태도($r=.385$)와

$p < .01$ 수준에서, 학교규칙($r = .293$), 교사관계($r = .268$)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교사의 지지는 교사관계($r = .657$), 교우관계($r = .360$), 학교규칙($r = .360$)과 $p < .01$ 수준에서, 수업태도($r = .340$)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친구의 지지는 교우관계($r = .665$), 학교규칙($r = .521$), 교사관계($r = .515$), 수업태도($r = .496$)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1$).

한부모가정 남학생의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정보적 지지($r = .649$), 물질적 지지($r = .638$), 정서적 지지($r = .617$), 평가적 지지($r = .526$)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교사관계($r = .545$), 교우관계($r = .544$), 학교규칙($r = .448$), 수업태도($r = .436$)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1$).

평가적 지지는 교우관계($r = .523$), 교사관계($r = .477$), 수업태도($r = .383$)와 $p < .01$ 수준에서, 학교규칙($r = .297$)과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정보적 지지는 교사관계($r = .558$), 교우관계($r = .548$), 수업태도($r = .515$), 학교규칙($r = .45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1$).

물질적 지지는 교사관계($r = .602$), 교우관계($r = .571$), 학교규칙($r = .450$), 수업태도($r = .417$)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1$).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교사관계($r = .628$), 교우관계($r = .621$), 수업태도($r = .507$), 학교규칙($r = .489$),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전체($r = .702$)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1$).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정의 남학생은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친구 지지, 교사 지지, 그리고 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원으로서 친구의 지지($r = .687$, $p < .01$)와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r = .649$, $p < .01$)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한부모

가정 남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지지원으로서 친구의 지지와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여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부모가정 여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여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구 분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전 체	
지지원 별	부 모	0.257 (0.069)	0.113 (0.432)	0.341* (0.014)	0.127 (0.375)	0.317* (0.024)
	교 사	0.429** (0.002)	-0.176 (0.216)	0.246 (0.082)	0.185 (0.193)	0.249 (0.078)
	친 구	0.005 (0.971)	0.586** (0.000)	-0.056 (0.696)	-0.277* (0.049)	0.150 (0.294)
지지 유형별	정서적 지지	0.363** (0.009)	0.034 (0.810)	0.385** (0.005)	0.099 (0.490)	0.327* (0.019)
	평가적 지지	0.412** (0.003)	0.139 (0.330)	0.037 (0.798)	0.073 (0.610)	0.284* (0.044)
	정보적 지지	0.356* (0.010)	0.212 (0.134)	0.338* (0.015)	0.114 (0.426)	0.400** (0.004)
	물질적 지지	0.246 (0.084)	0.264 (0.062)	0.153 (0.284)	-0.072 (0.614)	0.246 (0.082)
	전 체	0.411** (0.003)	0.193 (0.175)	0.315* (0.024)	0.070 (0.628)	0.390** (0.005)

* p<.05, ** p<.01

<표 IV-10>에서 한부모가정 여학생의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지지($r=.317$)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5$). 그러나 교사의 지지($r=.249$), 친구의 지지($r=.150$)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는 수업태도($r=.34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5$). 그러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57$, $r=.113$, $r=.127$).

교사의 지지는 교사관계($r=.429$)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우관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46, r=.186, r=-.176$).

친구의 지지는 교우관계($r=.586$)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p<.01$), 교사관계($r=.005$), 수업태도($r=-.056$)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학교규칙($r=-.277$)과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규칙 준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정 여학생의 친구 지지가 교우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교규칙 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 여학생의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지지유형에 따라 정보적 지지($r=.400$)와 $p<.01$ 수준에서, 정서적 지지($r=.327$), 평가적 지지($r=.284$)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 지지($r=.246$)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수업태도($r=.385$), 교사관계($r=.363$)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교우관계, 학교규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34, r=.099$).

평가적 지지는 교사관계($r=.41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교우관계, 수업태도, 그리고 학교규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139, r=.037, r=.073$).

정보적 지지는 교사관계($r=.356$), 수업태도($r=.338$)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5$). 그러나 교우관계, 학교규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12, r=.114$).

물질적 지지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46, r=.264, r=.153, r=-.072$).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교사관계($r=.411$), 학교생활적응 전체($r=.390$)와 $p<.01$ 수준에서, 수업태도($r=.315$)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r=.193$), 학교규칙($r=.070$)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정의 여학생은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부모가정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를 포함한 1차 집단에서의 지지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유형으로서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적 지지($r=.400, p<.01$)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한부모가정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정보적 지지의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3)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1) 부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부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구 분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전 체	
지지원 별	부 모	0.472** (0.001)	0.213 (0.138)	0.441** (0.001)	0.324* (0.022)	0.480** (0.000)
	교 사	0.559** (0.000)	0.238 (0.095)	0.339* (0.016)	0.395** (0.005)	0.510** (0.000)
	친 구	0.294* (0.038)	0.569** (0.000)	0.346* (0.014)	0.248 (0.082)	0.508** (0.000)
지지 유형별	정서적 지지	0.565** (0.000)	0.331* (0.019)	0.485** (0.000)	0.408** (0.003)	0.598** (0.000)
	평가적 지지	0.372** (0.008)	0.366** (0.009)	0.214 (0.135)	0.131 (0.364)	0.380** (0.007)
	정보적 지지	0.532** (0.000)	0.423** (0.002)	0.480** (0.000)	0.460** (0.001)	0.636** (0.000)
	물질적 지지	0.526** (0.000)	0.367** (0.009)	0.410** (0.003)	0.351* (0.012)	0.559** (0.000)
전 체	0.590** (0.000)	0.423** (0.002)	0.490** (0.000)	0.428** (0.002)	0.651** (0.000)	

* $p<.05$, ** $p<.01$

<표 IV-11>에서 부자가정 자녀의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은 교사 지지($r=.510$), 친구 지지($r=.508$), 부모 지지($r=.480$)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는 교사관계($r=.472$), 수업태도($r=.441$)와 $p<.01$ 수준에서, 학교규칙($r=.324$)과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r=.21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의 지지는 교사관계($r=.559$), 학교규칙($r=.395$)과 $p<.01$ 수준에서, 수업태도($r=.339$)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r=.238$)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지지는 교우관계($r=.569$)와 $p<.01$ 수준에서, 수업태도($r=.346$), 교사관계($r=.294$)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규칙($r=.248$)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자가정 자녀의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정보적 지지($r=.636$), 정서적 지지($r=.598$), 물질적 지지($r=.559$), 평가적 지지($r=.380$)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교사관계($r=.565$), 수업태도($r=.485$), 학교규칙($r=.408$)과 $p<.01$ 수준에서, 교우관계($r=.331$)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평가적 지지는 교사관계($r=.372$), 교우관계($r=.366$)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수업태도, 학교규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14$, $r=.131$).

정보적 지지는 교사관계($r=.532$), 수업태도($r=.480$), 학교규칙($r=.460$), 교우관계($r=.423$)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물질적 지지는 교사관계($r=.526$), 수업태도($r=.410$), 교우관계($r=.367$)와 $p<.01$ 수준에서, 학교규칙($r=.351$)과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교사관계($r=.590$), 수업태도($r=.490$), 학교규칙($r=.428$), 교우관계($r=.423$)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즉, 부자가정의 자녀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자가정의 자녀는 지지원으로서 교사, 친구, 그리고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교사, 부모, 친구의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적 지지($r=.636, p<.01$)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부자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정보적 지지의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모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모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모자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구 분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학교생활적응 전체	
지지원 별	부 모	0.140 (0.293)	0.400** (0.002)	0.287* (0.028)	0.165 (0.216)	0.332* (0.011)
	교 사	0.623** (0.000)	0.035 (0.793)	0.347** (0.008)	0.235 (0.075)	0.434** (0.001)
	친 구	0.186 (0.163)	0.619** (0.000)	0.136 (0.309)	0.140 (0.295)	0.366** (0.005)
지지 유형별	정서적 지지	0.492** (0.000)	0.280* (0.033)	0.389** (0.003)	0.260* (0.048)	0.488** (0.000)
	평가적 지지	0.516** (0.000)	0.289* (0.028)	0.263* (0.046)	0.239 (0.070)	0.454** (0.000)
	정보적 지지	0.497** (0.000)	0.365** (0.005)	0.465** (0.000)	0.248 (0.060)	0.536** (0.000)
	물질적 지지	0.392** (0.002)	0.488** (0.000)	0.223 (0.093)	0.209 (0.116)	0.450** (0.000)
사회적 지지 전체	0.569** (0.000)	0.439** (0.001)	0.421** (0.001)	0.291* (0.027)	0.590** (0.000)	

* $p<.05$, ** $p<.01$

<표 IV-12>에서 모자가정 자녀의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은 교사 지지($r=.434$), 친구 지지($r=.366$)와 $p<.01$ 수준에서, 부모 지지($r=.332$)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는 교우관계($r=.400$)와 $p<.01$ 수준에서, 수업태도($r=.287$)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사관계($r=.140$), 학교규칙($r=.16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의 지지는 교사관계($r=.623$), 수업태도($r=.347$)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교우관계($r=.035$), 학교규칙($r=.23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지지는 교우관계($r=.619$)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교사관계, 수업태도, 그리고 학교규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186$, $r=.136$, $r=.140$).

모자가정 자녀의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정보적 지지($r=.536$), 정서적 지지($r=.488$), 평가적 지지($r=.454$), 물질적 지지($r=.450$)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교사관계($r=.492$), 수업태도($r=.389$)와 $p<.01$ 수준에서, 교우관계($r=.280$), 학교규칙($r=.260$)과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평가적 지지는 교사관계($r=.516$)와 $p<.01$ 수준에서, 교우관계($r=.289$), 수업태도($r=.263$)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정보적 지지는 교사관계($r=.497$), 수업태도($r=.465$), 교우관계($r=.36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학교규칙($r=.248$)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물질적 지지는 교우관계($r=.488$), 교사관계($r=.39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p<.01$). 그러나 수업태도, 학교규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23$, $r=.209$).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교사관계($r=.569$), 교우관계($r=.439$), 수업태도($r=.421$)와 $p<.01$ 수준에서, 학교규칙($r=.291$)과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모자가정의 자녀는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교사, 친구,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지지($r=.434, p<.01$)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모자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지지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사회적 지지유형으로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적 지지($r=.536, p<.01$)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모자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정보적 지지의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1.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2.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3.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주도 내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1, 2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사회적 지지 검사지와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그리고 개인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김승미(1998)가 초·중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부모, 교사, 친구를 사회적 지지원으로 한정하여,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측정도구로는 유윤희(1994)가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중·고등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p<.01$ 과 $p<.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전체적으로 남학생($M=3.33$)이 여학생($M=3.16$)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2.13, p<.05$). 지지원에 따른 부모의 지지는 남학생($M=3.63$)이 여학생($M=3.41$)보다 높게 지각하였고 ($t=1.99, p<.05$), 교사의 지지 또한 남학생($M=3.18$)이 여학생($M=2.68$)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3.65, p<.01$). 친구의 지지는 여학생($M=3.38$)이 남학생($M=3.19$)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2.04, p<.05$).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에 대하여 남학생($M=3.33$)이 여학생($M=2.97$)보다 높게 지각하였고($t=3.69, p<.01$), 정보적 지지 또한 남학생($M=3.58$)이 여학생($M=3.34$)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2.06, p<.05$).

한부모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전체적으로 모자가정의 자녀($M=3.34$)가 부자가정의 자녀($M=3.14$)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2.48, p<.05$).

지지원에 따른 부모의 지지는 모자가정의 자녀($M=3.66$)가 부자가정의 자녀($M=3.36$)보다 높게 지각하였고($t=-2.77, p<.01$), 친구의 지지 또한 모자가정의 자녀($M=3.37$)가 부자가정의 자녀($M=3.17$)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2.16, p<.05$).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에서 모자가정의 자녀($M=3.28$)가 부자가정의 자녀($M=3.04$)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2.39, p<.05$). 물질적 지지 또한 모자가정의 자녀($M=3.42$)가 부자가정의 자녀($M=3.13$)보다 높게 지각하였다($t=-2.37, p<.05$).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전체적으로 남학생(M=2.86)이 여학생(M=2.71)보다 높게 나타났다($t=2.18, p<.05$). 구체적으로 교사관계에서 남학생(M=2.69)이 여학생(M=2.39)보다 높게 나타났고($t=2.87, p<.01$), 수업태도 또한 남학생(M=2.96)이 여학생(M=2.76)보다 높게 나타났다($t=2.20, p<.05$).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전체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r=.624, p<.01$)을 보였으며, 지원에 따라 교사 지지($r=.468$), 친구 지지($r=.447$), 부모 지지($r=.419$)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특히 교사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지지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서 정보적 지지($r=.590$), 정서적 지지($r=.549$), 물질적 지지($r=.511$), 평가적 지지($r=.432$)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특히 정보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정보적 지지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지원에 따라 친구 지지($r=.687$), 교사 지지($r=.537$), 부모 지지($r=.450$)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지지유형으로는 정보적 지지($r=.649$), 물질적 지지($r=.638$), 정서적 지지($r=.617$), 평가적 지지($r=.526$)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이와 같이 남학생은 지원으로서 친구의 지지와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각각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정의 남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지원으로서 친구의 지지와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학생의 경우 지원으로서 부모의 지지($r=.317, p<.05$)와 사회적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r=.400, p<.01$), 정서적 지지($r=.327, p<.05$), 그리고 평가적 지지($r=.284,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여학생은 지원으로서 부모의 지지와, 지지유형으로 정보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

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정의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유형으로 정보적 지지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부모가정의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서 부자가정의 자녀는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교사 지지($r=.510$), 친구 지지($r=.508$), 부모 지지($r=.480$)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지지유형으로는 정보적 지지($r=.636$), 정서적 지지($r=.598$), 물질적 지지($r=.559$), 평가적 지지($r=.380$)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이와 같이 부자가정의 자녀는 지지원으로 교사와 친구의 지지, 지지유형으로 정보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자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지지원으로서 교사와 친구의 지지,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자가정의 자녀는 지지원으로 교사 지지($r=.434$), 친구 지지($r=.366$)와 $p<.01$ 수준에서, 부모 지지($r=.332$)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지유형으로는 정보적 지지($r=.536$), 정서적 지지($r=.488$), 평가적 지지($r=.454$), 물질적 지지($r=.450$)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이와 같이 모자가정의 자녀는 지지원으로 교사의 지지와 지지유형으로 정보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모자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교사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결론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하여 부모, 교사가 제공하는 관심, 정보 등의 사회적 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

둘째,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하여 부모, 친구가 제공하는 관심, 물질적 원조 등의 사회적 지지는 모자가정 자녀가 부자가정 자녀에 비해 높다.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교사관계, 수업태도 등의 학교생활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잘 적응한다.

넷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교사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의 제공이 중요하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지지가 요구되고,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지지가 요구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부모가정 자녀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므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부모, 교사,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필요하며, 특히 지지원으로서 교사의 지지와 지지유형으로서 정보적 지지의 제공이 중요하고,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지지가,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가족형태에 제한하여 연구하였으나 형제의 수, 동거가족, 가계수입 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실천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의 측면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의 실재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양적인 연구와 병행하여 관찰, 면접 등 자료의 다양한 수집을 통한 질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철(2001). 한국모자가정의 문제와 복지정책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경숙(1999). 자아개념과 학교적응간의 상호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관희(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미숙 외 공저(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 김승미(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연순(2000). 저소득편부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연주(1997). 가정환경 · 학교적응 ·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 김혜경(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정(2001). 부자가정 부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남억우 외 공저(1992). 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 노숙영(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영순(1979). 교육심리학신강. 문음사.
- 박아청(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석사

- 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유선(1999). 사회적 지지가 요보호 편모가정세대의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배의숙(2002).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변화순 외 공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사회적 지지 연구회 역(2002). 사회적 지지와 건강. 현문사.
- 서영숙, 황은숙(2003). 한부모가정과 이혼이해교육.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3-51.
- 손승영 외 공저(2001).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안영복(1985).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승아, 옴김(2003). 아동과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및 복원력. 민지사.
- 유기섭(2003). 교육심리학. 동문사.
- 유연옥(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제공자와 지지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Vol. 12, No.1(1999. 8) pp. 127-144.
- 유윤자(2000).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개방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미경(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채봉(2000). 정계처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 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미라(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범재(1991).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섭(1994). **인간과 교육**. 형설출판사.
- 이소희, 최덕경, 강지정, 김훈 공저(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도서출판 양지.
- 이영주(1999). **부자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용호(2000). **중등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사회사업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이원숙(1995).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 이론**. 홍익재.
- 이주연(2000). **일반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화정(2002). **가족형태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 적응**.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유진(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장경숙(1996). **중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연집(1997).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양서원.
-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편역(2001). **청소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변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정문, 장상희(2001). **가족사회학**. 아카넷.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경석 외 공저(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최장숙(1993). **국민학교 아동의 충동성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통계청(2001). **인구이동통계연보 : 2000**. 통계청.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1998).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 한성희(2002). **영재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윤경(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Bryant, B. K. (1985). The neighborhood walk :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 Cobb, S. (1979).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Vol. 20.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Cohen, S., Syme, S. L.(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3-23.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ubois, D. L., Susan,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Felnre, R. D.,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 during school transition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hips. In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N. Y.:John Wiley & Sons.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Kahn, R. L.,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 Attachment, role,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 Kaplan, B. H., Robbins, C. & Martin,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93-115.
- Ladd, G. T. (1996). *Elements of physiological Psychological : a treatise of the activities and nature of the mind*. Bristol, England : Thoemmes.
- Lin, N., Dean, A. & Ensel, W.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 Academ Press.
- Parke, R. D. (1981). *Fath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 Waltz, J. A.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Thoits, P. A. (1986).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Wheaton, B. (1985). Models for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352-364.

Weiss, R. (1986). *Continuities and transformation in social relationship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Woods, M. (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1), 14-25.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adaption to
school life which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have**

Oh, Min-Suk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ous social support for improving the adaption to the school life of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by clearing up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adaption to school life which sons and daughters in a one parent family have. And for this, we set up study problems like following: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on social support for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depending on sex and family style?

Second, is there any difference on adaption to school life of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depending on sex and family style?

Third,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for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and adaption to school life?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ubjects, consisting of 108 middle schools students in one parent families, were drawn from first and second grade classes of middle school located in Jeju-do. We measured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and adaption to school life using a questionnaire on Social Support by Kim, Seung-Mi(1998) and a questionnaire on Adaption to School Life by Yu, Yun-Hui(1994) and analyzed collected data using SPSS program coping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boys have higher social support than girls in social support for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Second, social support for sons and daughters in a family composed of mother and children is higher than in a family composed of father and children.

Third, boy students have a higher degree of adapting to school life than girl students in adapting to school life for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Fourth, the higher social support for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is, the higher degree of adapting to school life is. In the case of boy students in one parent families, the support from friends is especially needed, whereas in case of girl students, the support from parents is needed.

In conclusion, sons and daughters in one parent families adapt to school life more better as social support is higher, so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needs to be provided for them to adapt to school life. It suggests that boy students especially need friends' support, whereas girl students need parents' support.

부 록

<부록 1> 사회적 지지 검사지

<부록 2>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3> 개인별 특성에 대한 질문지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문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 검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끝까지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은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에 ○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오민숙

〈부록 1〉 사회적 지지 검사지

1. 사회적 지지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글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의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2. 내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3.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4. 내가 마음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5.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6.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7.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8. 내가 한 행동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바르게 평가해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9.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0. 나의 일을 인정해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1. 나를 존중해 주며, 대접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2.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3.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5.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6.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7. 내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충고를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8.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19.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20. 내가 꼭 필요로 하면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21.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22. 내가 필요로 할 때, 귀중한 물건이라도 빌려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23.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24. 내가 아파서 누웠을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대신해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님	1	2	3	4	5
선생님	1	2	3	4	5
친구	1	2	3	4	5

〈부록 2〉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2. 학교생활 적응

※ 다음의 질문지는 평소에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5
2	학교에서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1	2	3	4	5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1	2	3	4	5
4	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1	2	3	4	5
5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5
6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1	2	3	4	5
7	나는 학교생활 중에서 수업시간이 즐겁다	1	2	3	4	5
8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1	2	3	4	5
9	선생님을 길에서 보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1	2	3	4	5
10	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1	2	3	4	5
11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13	선생님께서 나를 귀여워하신다	1	2	3	4	5
14	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	2	3	4	5
15	각 과목마다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사용한다	1	2	3	4	5
17	우리학교에는 존경할만한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	1	2	3	4	5
18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1	2	3	4	5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5
20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	2	3	4	5
21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1	2	3	4	5
22	나는 학급에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23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들이 많다	1	2	3	4	5
24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5
25	선생님께서 내가 자주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26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1	2	3	4	5
27	나는 수업시간 중 틈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5
28	학교는 질서와 규칙을 너무 강조한다	1	2	3	4	5
29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	1	2	3	4	5
30	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31	나는 수업 중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	1	2	3	4	5
32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부록 3〉 개인별 특성에 대한 질문지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1. 성별 : 남()
여()

2.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 하세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새아버지()

새어머니()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3. 만일 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

이혼()

별거()

가출()

기타()

4. 만일 친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어려운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